

2024
부천마을미디어
연간보고서

CONTENTS

CHAPTER 01

사업소개

2024 부천마을미디어 사업소개	06
사업성과	08

CHAPTER 04

활동리포트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펼쳐보세요!	28
경기마을미디어축제, 부천으로 물들다	32
어서와~ 부천은 처음이지?	36

CHAPTER 02

참여단체

2024 부천마을미디어 지도	14
마을미디어 소개	16

CHAPTER 05

참여후기

마을미디어 인터뷰	42
마을미디어 참여후기	50

CHAPTER 03

모니터링

모니터링 총평	22
---------	----

CHAPTER 06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OBS <경인마을라디오>	62
---------------	----



CHAPTER 01

사업소개



참여단체

모니터링

활동리포트

참여후기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부천마을미디어 사업은

2016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민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을 거쳐 8년째 달려온 마을미디어를 통해 부천 곳곳의 정보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작은 녹음스튜디오에서 시작한 부천마을미디어는 이제 공중파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는 앞으로도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한 마을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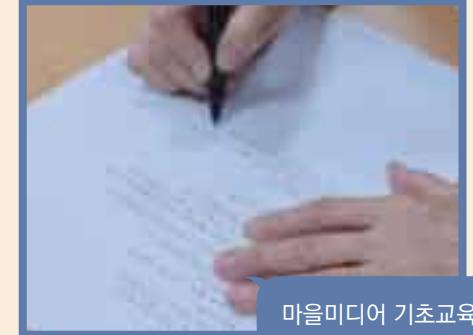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우수상 수상



마을미디어 기초교육



찾아가는
부천시니어영상제



'어바라' 확산활동



'송내동끼디오'와 '상.상.공.유' 연합방송

연간일정

내용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유통지원사업 업무협약 • 참여자 모집 공고 19팀 선정 • 오리엔테이션	●						
• 부천미래교육센터 <뚜벅뚜벅 마을교실> 교육		●	●				
• 이주배경청소년 마을미디어 체험교육		●	●	●	●	●	
• 지역가점 마을미디어 기초교육 80회 진행 -상동·원미·한울빛·수주 시립도서관 -아트벙커B39, 부천시민미디어센터			●	●	●	●	●
•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 • 부천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					●		
• 찾아가는 부천시니어영상제					●	●	
• OBS <경인마을라디오> 참여 10회	●	●			●	●	



스피치 특강



성과공유회



수상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지역문화 우수사례상

2024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 공모전

(최우수상)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딥페이크>

(우수상) 아빠육아수다 아육수 <2024 아육수 16회 ‘인수네 뉴스’>

(우수활동상) 어바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개방송>

OBS FM <경인마을라디오> 이달의 우수콘텐츠 2회 선정

(4월) 부천연대 <세월호 10주기와 부천의 활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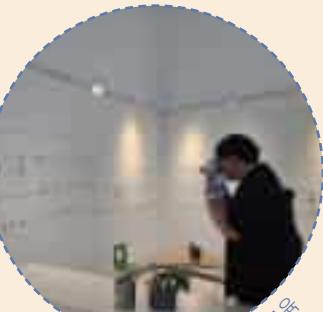
(6월)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쓰레기 불법투기>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대상) 부시멘 강현구 <9순 어머니와 퍼즐 맞추기>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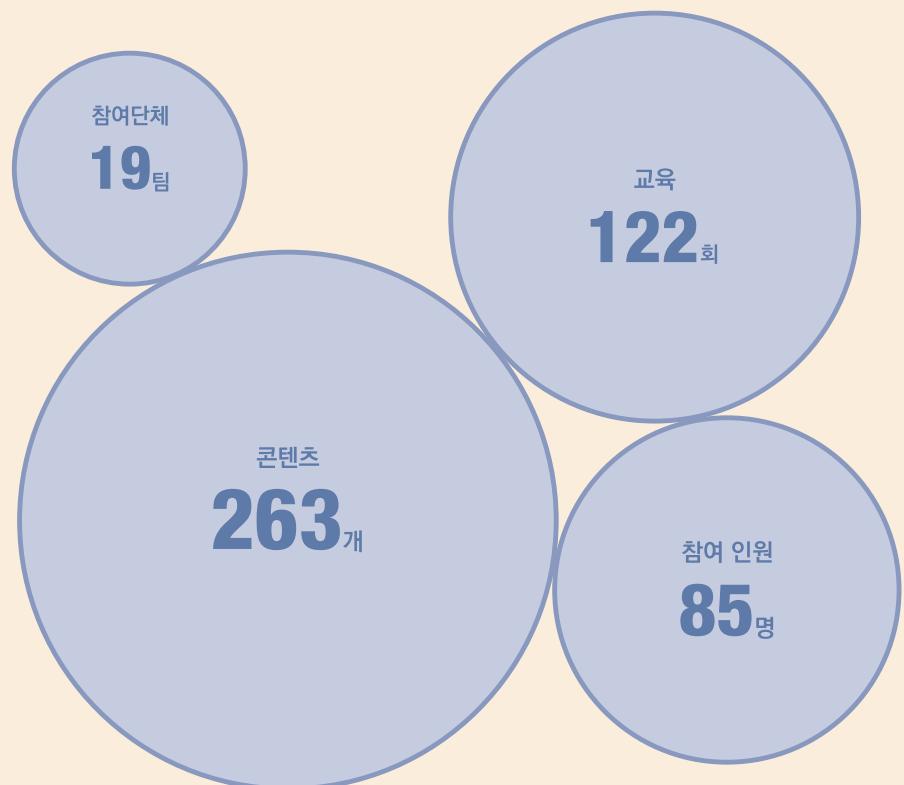


부천새날학교 미디어교육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대상 강현구

한눈에 보는 2024 부천마을미디어



*2024.11.26. 기준

- 참여단체, 참여인원, 콘텐츠 : 공모선정 단체 기준
- 교육, 교육인원 : 공모선정 단체 및 마을미디어기초교육, 특강 포함

만족도 조사



마을미디어 사업 만족도

참여인원 42명 | 조사기간 2024.10.25 ~ 10.31

86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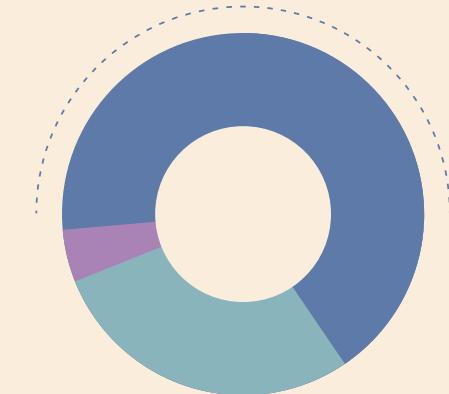


미디어교육 만족도

참여인원 38명 | 조사기간 2024.6.28 ~ 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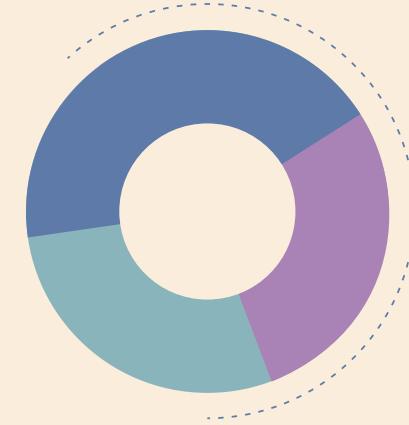
95 점

마을미디어 매체 기준



- 영상 12 팀
- 오디오 6 팀
- 다큐멘터리 1 팀

단체활동 경력



- 1년 이하 7 팀
- 2~3년 6 팀
- 4년 이상 6 팀

만족도 높은 지원사항

1위 | 미디어 기기 대여

2위 | 교육 멘토링 강사

3위 | 전문가 활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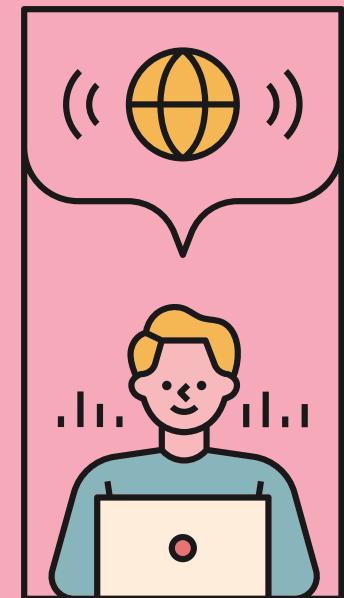
4위 | 교육 회차

1위 | 팀원 간의 스케줄 조정

2위 | 아이템 선정의 어려움

3위 | 제작비 부족

4위 | 취재 및 인터뷰



CHAPTER 02

사업소개

참여단체

모니터링

활동리포트

참여후기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2024 부천마을미디어 지도



행정동	팀명
역곡동	뜰작마을미디어 유한대PMC
심곡본동	아빠육아수다 아육수 어바라(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이삼열
송내동	송내동께디오 팡팡필름 산학교
소사동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소사본동	부천오원소
중동	뭐하는언니들
중1,2동	마들소리
춘의동	부천사람들
원종동	희망샘
신흥동	상살미사람들
원미1동	상.상.공.유
상동	부천시니어멘토스쿨 우승

우리동네 마을미디어를 소개합니다

2024년 부천마을미디어는 상반기 공고를 통해 선발된 19개 단체와 마을미디어기초교육 후속모임을 지원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참여단체를 소개합니다. QR코드를 통해 마을미디어 주요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 오디오

부천오원소는 세 명의 진행자 복동이 김근희, 육토끼 김성경, 턱이 형 한준탁과 엔지니어 박병철이 모여 부천의 오정, 원미, 소사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을 만들고 청년들의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 팀입니다. 청년들의 사연을 받아 소개하는 '복동이의 복덕방', 청년들의 직업과 일상을 다루는 '푸른삶', 역사 코너 '동진학당' 등을 통해 부천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빠육아수다 아육수는 아빠들이 이야기하는 육아 채널로 육아 정보, 키즈 퀴즈, 아빠 육아일기 등을 전달하며 아빠들이 엄마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내동끼오는 청소년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채널로, 세계 환경의 날 특집으로 '기후위기, 이대로 괜찮을까?'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바라는 성평등의 관점으로 다양한 삶과 사회문제를 해석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채널입니다.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것들도 평등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공감과 응원을 전합니다.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는 전문 배우와 시민들이 함께 창작 작업을 통해 소통하며, 부천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를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하는 채널입니다.

희망샘마을라디오는 오정구 원종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사연을 직접 받아 소개하며, 지역민의 삶을 들여다보는 채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장소를 소개합니다.

| 영상

뜰작마을미디어

뜰작마을미디어는 사람 이야기, 마을 환경, 주민들의 활동 그리고 개발로 인해 사라질 풍경과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하여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채널입니다.

부천사람들

부천사람들은 부천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미디어로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들이 가진 고민과 노력, 에너지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Mother

마들소리는 삶의 행복을 찾는 여성들의 일상과 인터뷰를 담아냅니다.

뭐하는언니들

뭐하는언니들은 직장생활이 아닌 창업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양한 자영업 중 공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부천의 삶은 어떤지 등을 각자의 시선에서 다채롭게 기록하는 채널입니다.

산학교

올해 산학교 9학년 학생들은 '민주교육'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습니다. 국내 도보여행, 이동학습, 해외 이동학습을 떠나 일과 배움을 함께 하며 좌충우돌한 이야기, 우리가 바라본 세상 이야기, 우리가 경험한 민주교육, 그리고 각자의 배움을 담아냈습니다.

유한대PMC

유한대PMC는 유한대학교의 1인 미디어영상 제작 과정을 수료한 역량 있는 구성원들이 심화학습을 통해 활동하는 팀입니다. 부천의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장소들을 영상으로 소개하며, 2024년에는 부천의 공원을 부천 시민과 외부 도시에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마을교육자원 아카이브 채널

우승은 마을 교육자원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 채널입니다.

상.상.공.유는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공공의료의 의미와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채널입니다.

부천시니어멘토스쿨은 퇴직 전후 시니어들에게 봉사활동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노년을 풍부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2024년에는 '준비있는 이별'을 주제로 유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상살미사람들은 우리 마을의 마법사, 건강 명소, 도시재생 공간의 현재 운영 현황과 마을 재개발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채널입니다.

팡팡필름은 부천의 명소부터 소소한 곳까지, 부천의 구석구석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채널입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천천히 부천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소박

시각예술가들로 구성된 이소박은 팀의 활동을 소개하는 채널로, 작업공간, 마을에서의 역할, 일상 모습, 작업 기획 과정, 라이프스타일, 공유할 수 있는 자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프로젝트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뒷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다큐멘터리

어린이식당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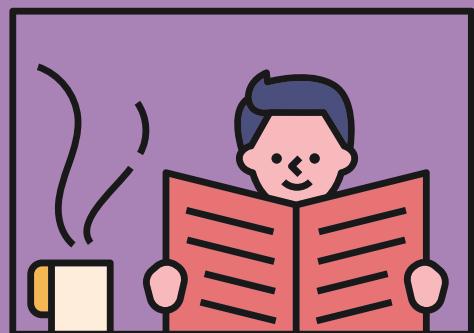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간 심곡본동 '어린이식당 마루'를 찾아오는 아이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마을미디어 활동 이모저모





CHAPTER 03



사업소개

참여단체

모니터링

활동리포트

참여후기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2024 부천마을미디어 사업 모니터링 총평

전문가 모니터링 주정순

I. 참여단체와 제작 콘텐츠 주제 분석

제작 방식	단체명	콘텐츠 주제 및 소재 ¹⁾
부천오원소		부천, 청년, 문화, 생활정보, 노동, 인권
송내동께디오		부천, 청소년, 환경, 인권, 이주민
아빠육아수다 아육수		부천, 가족, 육아, 문화, 생활정보 ※부지직: 부천, 노동, 인권
오디오	어바라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부천, 문화, 여성, 인권, 사회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문화
희망샘		부천, 문화, 생활정보
다큐	이삼열(개인)	부천, 마을, 청소년

1) 대표적인 소재들만 분류하였다.

제작 방식	단체명	콘텐츠 주제 및 소재 ¹⁾
뜰작마을미디어		부천, 마을, 문화, 생활정보, 안전
마들소리		부천, 마을, 문화
뭐하는언니들		부천, 마을, 문화
부시멘(부천시니어멘토스쿨)		부천, 마을, 문화, 인권, 노인
부천사람들		부천, 마을, 문화, 생활정보
산학교		부천, 청소년, 문화, 교육
상.상.공.유		부천, 문화, 인권
상살미사람들		부천, 마을, 문화
우숨(우리들의 수상한 움직임)		부천, 청소년, 문화
유한대PMC		부천, 마을, 문화
이소박		부천, 마을, 문화
팡팡필름		부천, 마을, 문화

-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4년 부천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은 이전의 지원사업과 달리 영상 제작지원 참여단체의 수가 오디오 제작지원 참여단체보다 많았다. 또한 오디오 제작지원 참여단체 중 신규단체는 보이지 않았다.

- ▶ 제작된 콘텐츠는 주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부천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게 다루고 있다.

1) 영상 콘텐츠 평가

- ▶ 영상 제작지원 단체들이 많아진 만큼 다양한 주제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부시멘 팀의 유언 영상, 팡팡필름의 부천 소개 영상 콘텐츠는 제작하는 단체의 개성과 역량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마들소리, 뭐하는언니들, 이소박 등 예술활동 단체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 부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가들을 소개하며 부천마을미디어 영상 콘텐츠의 내용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 ▶ 다큐멘터리 작품도 1편 제작되어 눈길을 끈다. 어린이식당의 모습을 보다 양질의 영상과 구성으로 담아낸 이 다큐멘터리는 마을미디어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2) 오디오 콘텐츠 평가

- ▶ 기존 단체들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 오디오 제작지원의 경우 새로운 시도보다는 각 채널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정기적으로 방송되는 오디오 콘텐츠인 만큼 코너 구성, 진행 방식, 기술적인 부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취 시 큰 불편함을 찾기 어렵다.

- ▶ 반면에 새로운 신규 단체 발굴과 지원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부천마을미디어의 지속 가능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신규 단체 발굴과 제작교육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 ▶ 2024년에는 부천마을미디어 오디오 콘텐츠의 공개방송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도 지적하고 싶다.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마을미디어의 핵심이다. 따라서 관계 기관의 행사와 연계한 공개방송이나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공개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하여 방송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통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II. 끝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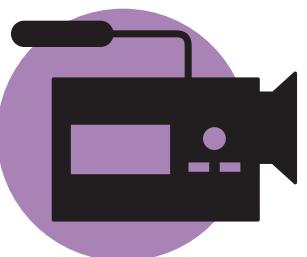
- ▶ 2024년 부천마을미디어의 평가를 요약하자면 “정체와 병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디오 콘텐츠는 안정적인 제작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새롭지 않고 정체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영상 콘텐츠의 경우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비슷한 소재를 다룬 경우가 많아 차별화가 부족하며, 간헐적으로 신선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부천마을미디어를 대표하는 영상 콘텐츠는 부재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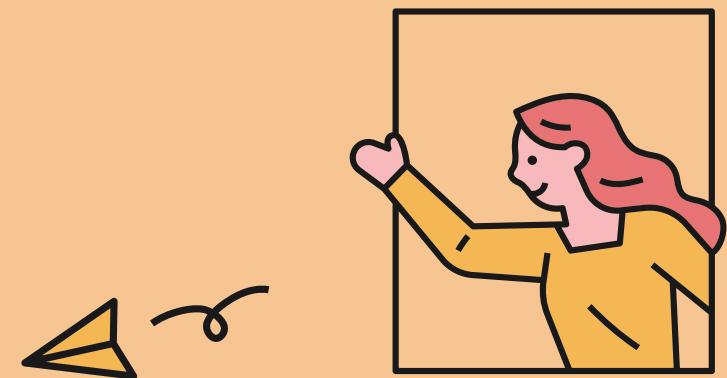
- ▶ 제작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천시민미디어센터는 부천마을미디어의 정체성과 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하겠다. 단순히 시민들이 제작하는 부천 관련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지, 마을미디어의 정통성을 따라서 콘텐츠로 확장된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들도 단순히 정해진 사업기간 안에 콘텐츠를 제출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보다 정형화된 방송의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업로드 일정과 방송 구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 교육형과 제작형으로 지원사업 단체를 선정하던 이전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신규 단체들을 발굴하고 제작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 2024년을 끝으로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홈페이지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로 통폐합된다는 소식이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마을미디어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홈페이지 통폐합에 따른 부천 마을미디어 아카이브 구축과 제작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기를 바란다. 지역미디어센터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부천마을미디어가 가진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양적·질적 발전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란다.





CHAPTER 04



사업소개

참여단체

모니터링

활동리포트

참여후기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부천마을미디어 교육생에게 듣는
마을미디어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펼쳐보세요!



권유경
부천마을미디어 취재기자단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4인의 범상치 않은 교육생**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펼쳐보세요!”

2024년 부천시민미디어센터가 준비한 마을미디어 교육의 슬로건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고, 부천의 이야기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마을미디어를 만들 수 있도록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은 부천시민미디어센터를 시작으로 미디어 장비를 갖춘 도서관 등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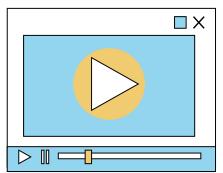
그 중 지난 5월 17일 부천시민미디어센터에서 시작한 첫 교육이 6월 28일, 총 12회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미디어 진행자·PD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수[아빠육아수다 아육수] 강사가 라디오 분야를, 정재성[부천사람들] 강사가 영상 분야를 맡았습니다. 마을미디어 활동가가 선배이자 강사로서 함께한 이번 교육에는 과연 어떤 시민들이 참여했을까요? 그리고 교육생들은 마을미디어 교육 후 어떤 이야기를 준비 중일까요?

직접 제작한 옷을 입고, 직접 만든 마크라메 팔찌를 한 4인의 교육생. 높은 평균 연령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자신감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상살미사람들협동조합(이하 상살미)의 서정숙, 최정길, 김순옥, 김진우 님입니다.

삼정동에서 활동하는 상살미는 이미 미디어의 힘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미디어 시대에 맞춰 마을과 협동조합을 스스로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누가 이걸 보겠어?”라는 앞선 걱정에도 불구하고, 상살미는 마을 안에서 알찬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준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마을미디어 활동가

“잘한 후에 도전하는 건 의미가 없다. 무조건 도전 하라.”

인생이모작을 통해 이미 유튜버로 활동 중인 곽석영 님. 꾸준히 일기장처럼 방송을 이어가며, 기술적·내용적으로 더 성장하겠다는 목표로 교육에 몰입했습니다. 교육 중에는 스트리밍 방송을 위해 색소폰과 장비를 직접 들고 오는 열정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넘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인터뷰 연습도 진행 중입니다. 곽석영 님이 만날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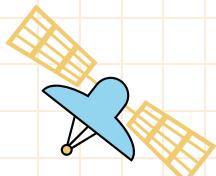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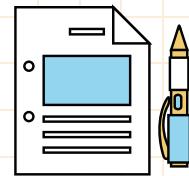
부천을 이야기하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활동을 이어온 플루트 오케스트라 단원인 박우선 님. 부천의 다양한 장소에서 연주하며 부천과 플루트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을 걷거나 상동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부천에서 발견한 일본 관련 콘텐츠들에 흥미를 느낀 윤석환 님. 이를 계기로 남들은 모르는, 그래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 그리고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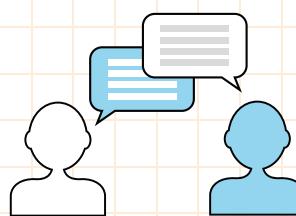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시대에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김수정 님은 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가족을 넘어 청소년과 사회문제까지 엄마와 자녀가 함께 풀어보는 라디오를 꿈꾸며, 자녀와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미디어를 찾았습니다.



마을미디어 교육은 ing

한울빛도서관에서의 교육을 신청한 작가이자 시낭송가 김명숙 님은 이번 교육에서 청강생으로 참여하며 마을미디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콘텐츠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을 수료한 후, 김명숙 님이 만들어 낼 마을미디어는 어떤 이야기를 담게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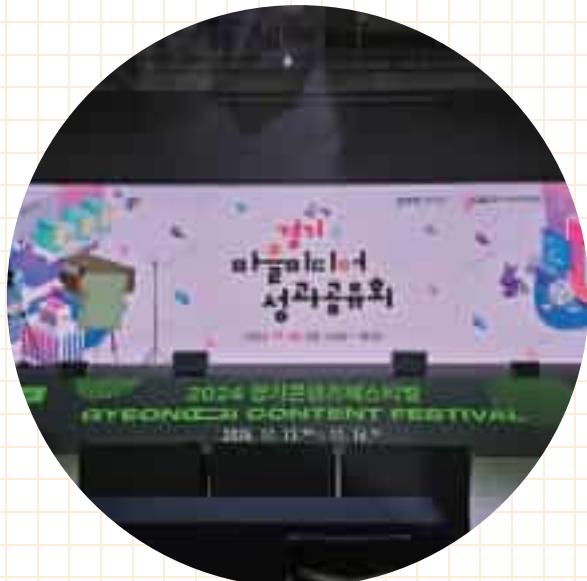
평범하지만, 특별한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펼쳐보세요! 부천마을미디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9인의 교육생들이 전해줄 이야기들은 평범하지만, 특별합니다. 예비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응원해 주세요. 아무리 소소한 이야기라도 마을미디어를 통해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곧 마을의 이야기가 되는 마을미디어. 부천마을미디어 교육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펼쳐보세요. 부천마을미디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2024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 부천으로 물들다



권유경
부천마을미디어 취재기자단

경기마을미디어축제 현장

11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콘텐츠페스티벌과 함께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10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한 해를 돌아보고, 우수 콘텐츠를 수상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성과공유회에 앞서 경기콘텐츠페스티벌에서는 경기 마을미디어 부스를 통해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과공유회에서 수상할 영상 및 라디오 콘텐츠를 미리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는데요. 경기도 각지에서 완성된 마을미디

어 작품들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천시 유일의 성평등 팟캐스트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어바라'와 아빠육 아수다 '아육수'의 콘텐츠가 당당히 청음존에 자리 잡았습니다.

본격적인 성과공유회는 총 5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경기마을미디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야기를 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천의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었고, 어떤 영상을 담아냈으며,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았을까요? 나아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현장의 열정과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마을미디어는 풀뿌리 사업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의 기념사에는 경기마을 미디어의 본질을 한 줄로 요약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정도 다르고 참여하는 사람도 각양각색인 10개 마을미디어. 하지만 마을미디어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웃 간 소통을 이끄는 중요한 풀뿌리 사업입니다.”

미디어의 트렌드

마을미디어포럼에서는 미디어의 트렌드와 그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VR아티스트 염동균의 신비한 마술 같은 작품쇼가 포럼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 도민PD와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함께 AI와 VR 기술이 마을미디어와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진짜만 살아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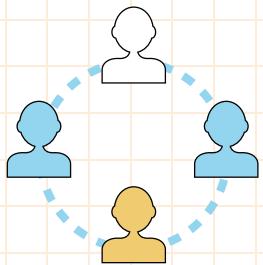
“윤리적인 잣대와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술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마을미디어의 미래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토크 쇼였습니다.

피칭데이

경기도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Pitching DAY’

7팀 중 부천에서는 ‘유한대PMC’가 참가해 8명의 회원들이 촬영과 편집을 마스터하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된 과정을 발표하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을미디어, 지금

성과공유회 동안 진행된 ‘마을미디어, 지금’을 통해 실제 방송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요. 부천의 함께 하는미디어모임 ‘함미모’와 ‘부천마을미디어네트워크’가 능숙한 진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오랜 경험을 자랑하는 ‘부천마을미디어네트워크’ 못지않게 2024년 마을미디어 기초교육을 통해 결성된 ‘함미모’ 역시 라디오의 매력을 가득 담은 방송을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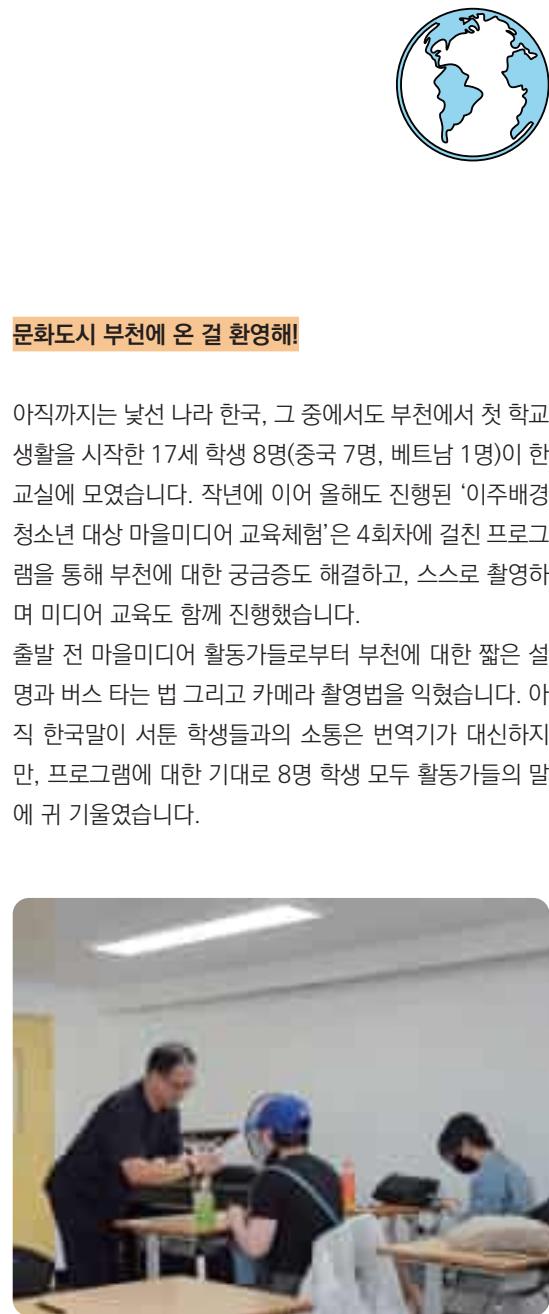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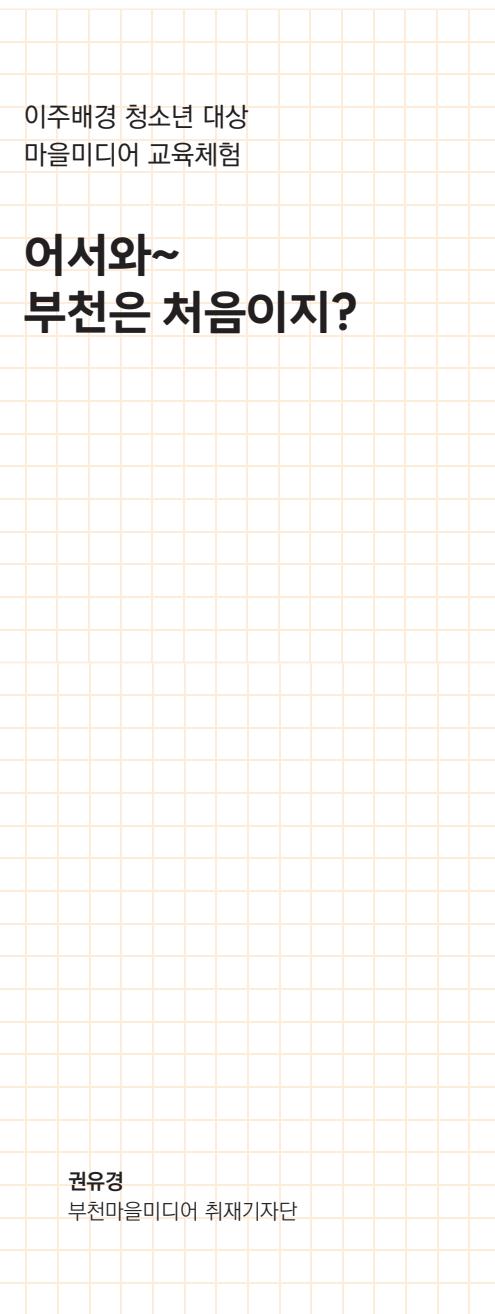
청년예술가

부천은 축하공연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청년예술가S로 활동한 하모니카 연주가 백찬영이 선보인 익숙한 멜로디의 연주곡들이 성과공유회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미디어, 지금

대망의 시상식! 과연 2024년 경기도마을미디어를 빛낸 콘텐츠와 활동가는 누구였을까요? 라디오 드라마로 2년 연속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과 OBS <경인마을라디오> 이달의 우수작을 수상한 ‘플레이스 트리밍라이프’, 라디오 부문 우수상에 아빠들의 육아수다 ‘아육수’, 지역거점경기마을미디어 우수활동가상에 성평등 팟캐스트 ‘어바라’가 수상하며 라디오 분야 모두 부천마을미디어가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마을미디어의 과거, 현재를 보여준 성과공유회. 그리고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는 2025년. 마을미디어는 지금도 마을 안에서 마을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을 찾아서

1회차 교육의 목적지는 문화도시이자 만화도시인 부천을 대표하는 한국만화박물관. 1층부터 4층까지 만화와 힙합을 연계한 기획전시를 관람하고, 최초의 만화를 보며 신기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표인 부천을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옛날 만화방을 재현한 포토존에서는 올해 나이 79세인 시니어 봉사자와 만났습니다. 봉사자님의 반가운 환영과 공간, 체험에 대한 영어 설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어로도 소통은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집중하는 모습과 봉사자님의 열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미션:나만의 만복이 컬러링>이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선택한 만복이 캐릭터 바탕에 단순히 색을 칠하는 활동이었지만, 만화라는 특징적인 공간이어서인지 학생들의 컬러감이 빛을 발했습니다. 똑같은 만복이가 전혀 다른 8개의 스타일로 재탄생! 물론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버엔딩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얼싼쓰!"
사진촬영시 전세계 공통인 '하나둘셋'을 중국어로 외치며,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한국만화박물관에서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새날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은 저마다 만족감과 함께 다음에 찾아가게 될 공간에 대한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마을미디어 교육체험' 2회차는 부천의 어떤 모습을 또 소개하게 될까요? '네버엔딩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기대해 주세요!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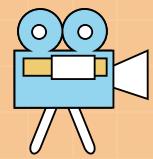
1



2



3



부천마을미디어
활동



5



4

- 4 '부천마을미디어네트워크' 공개방송
- 5 '함미모' 공개방송
- 6 찾아가는 부천시니어영상제

6



1 라디오 우수콘텐츠 수상
<아빠육아수다 아육수>

2 라디오 최우수콘텐츠 수상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3 지역거점 경기마을미디어 우수활동가상
<어바라>



CHAPTER 05

사업소개

참여단체

모니터링

활동리포트

참여후기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어바라

성평등을 말하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어바라]는 성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하는 부천의 팟캐스트 팀이다.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성평등과 인권, 일상 속 차별을 주제로 청취자와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성평등이라는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일상의 이야기로 풀어내며, 청취자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어바라]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어바라]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팀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어바라]는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싶다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성평등은 젠더 갈등으로 자주 비춰져 무겁게 다뤄지곤 했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느꼈죠. 성평등은 단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일상과 연결된 중요한 가치라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팀 이름인 [어바라]는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라는 뜻이에요.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팟캐스트 제작 교육을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였고, “가볍게 시작하자,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그 초심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각 주차별로 진행되는 [어바라]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바라]의 프로그램은 4주 로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주차 '뜨거웠던 감자'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를 돌아보고, '매운맛 피드백'을 통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방송에서 소통합니다. 2주차 '평등 앞에 선 그 대에게'는 일상 속 차별을 발견하고 평등의 가치를 돌아보며,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코너에서 청취자들의 짧은 글을 통해 페미니즘을 재조명합니다. 3주차와 4주차는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를 통해 게스트의 참여로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평등은 다루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시나요?

주제를 선정할 때는 팀원들이 함께 모여 자주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차별적인 요소까지도 돌아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거든요. 방송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청취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을지입니다. 단순히 비판하거나 갈등을

부각하기보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주제를 깊이 파고들면서도 듣는 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려고 신경쓰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방송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은 어떤 계기로 기획되었으며, 현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딥페이크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로 자리잡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공개방송은 이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접수받아 방송에 반영하고, 현장에서는 포스트잇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했어요. 양육자, 청소년, 남성 청년은 현장에서 직접 발언했지만, 한 20대 여성 청년은 두려움을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글로 자신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글을 대독하며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방송은 단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모두의 책임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팟캐스트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는 겁니다. 팀원들은 각자 대본을 준비한 뒤 함께 모여 토론하며 주제를 다듬어요.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표현에 특히 신중하려고 해요.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불필요하게 비난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차별을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죠.

지역사회와의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는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천시민미디어센터와 협력해 기술적 지원을 받으며, 지역단체인 부천새시대여성회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얻고 있어요. 부천새시대여성회는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고, 종종 반응을 들려주며 큰 힘이 되어 주는 곳입니다. 녹음 중에도 회원분들이 들려 “잘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응원 덕분에 더 큰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느낍니다. 올해는 여성주의 특강을 열어 세 분의 외부 강사를 초청해 성평등의 가치를 보다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부천시의 다양한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성평등 축제를 알리고 지원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담장넘어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성평등 축제 가이드를 소개해 부천시 단톡방에 공유하고, 방송 홍보와 가이드라인 확산에 기여했죠.

팟캐스트 제작 과정에서 장비나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녹음 장비는 ‘아빠육아수다 아육수’ 팀의 장비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주말 녹음을 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마을미디어의 다른 팀 분들이 달려와 도와주시는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번,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몰아서 4회분을 녹음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녹음을 진행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준비가 필요하지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또한, 마을미디어 지원금은 통합 계좌에 모아두었다가 연대기금이나 청취자 이벤트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송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미디어는 우리 같은 동네 기반 팀에게 정말 좋은 플랫폼이에요. 복잡한 전문 용어 없이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떨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죠. 차별과 혐오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차별이 아닌 평등을, 혐오가 아닌 이해를 이야기하는 이런 미디어가 부천 시민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미디어를 통해 연대와 이해, 상호존중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그 작은 목소리들이 결국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길로 모이길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팟캐스트 외에도 공개방송, 특강,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취자들과 직접 만날 계획입니다. 특히 차별 경험을 나누고 싶지만 말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올 연말에는 방송에 출연했던 게스트들과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바라]를 지켜보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신의 차별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바라]와 함께해 주세요. 함께하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드라마가 흐르는 스트리밍

2024년 제6회 경기마을미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OBS <경인마을라디오> 이달(5월)의 우수작을 수상한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팀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밀도 있게 풀어내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라디오 드라마와 자유로운 토크쇼 진행으로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는 이 팀의 시작과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는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팀명에 담긴 의미와 설립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희 팀의 구성원은 모두 극단 예터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연극 외에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마을활동가 분들과 부천마을미디어라는 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극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라디오 드라마라는 형식을 떠올리게 되었죠.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라는 팀명에는 저희의 목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Play’는 연극을, ‘Stream’은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라디오 방송과 시대의 흐름을, 그리고 ‘Life’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재미있는 라디오 드라마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점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발전했어요. 주민들께서 “이건 내 이야기 같다”라고 말해주실 때마다 큰 힘을 얻어요.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는 거창하지 않아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팀명처럼 저희의 활동이 지역사회와 빠르게 연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과정이 인상적입니다. 주제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청취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데 가장 신경을 씁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문제들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실제로 겪는 이슈라 자연스럽게 선정됐어요. 하지만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아요. 저희는 매달 회의를 통해 팀원들 각자가 준비해온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합니다. 주제를 선정한 뒤에는 미디어센터와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방향을 구체화하죠. 보이스피싱을 다룬 에피소드는 실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사건 속 감정을 드라마 대본에 담아낸 대표적인 작업이에요. 드라마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도 청취자들이 너무 무겁게 느끼지 않도록 유머와 감동을 적절히 섞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쉽지는 않지만 완성된 콘텐츠가 청취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껴요.



드라마와 토크쇼를 결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형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디오 드라마는 짧은 시간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좋고, 토크쇼는 주제를 심화하고 청취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희는 두 가지 형식을 결합하면서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드라마는 청취자들이 특정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돋는 데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 사기 에피소드에서는 피해자의 불안과 혼란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청취자들이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어요. 반면, 토크쇼에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면서 드라마가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보완했어요. 특히 토크쇼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팀원들의 생각이나 예상치 못한 유머가 청취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해요. 이런 과정에서 청취자들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도 이런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본 작업 및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어떤 창의적 시도를 하고 있나요?

저희는 대본 작업과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현실성을 높이고 몰입감을 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세심하게 설정하고, 드라마의 대사를 더 현실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칩니다.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는 단순히 문제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재구성하거나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청취자들이 듣는 것만으로도 생생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디테일을 살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또한 청취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포맷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대사의 일부를 청취자들이 녹음해 보내도록 하거나, 청취자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에피소드를 제작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에요.

청취자들에게 가장 큰 반응을 얻은 에피소드는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에피소드는 ‘딥페이크’와 ‘전세사기’였습니다. 이 주제들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이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었어요. 특히 ‘딥페이크’ 에피소드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적 대응 방안과 함께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뤘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들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 외에도 ‘엄마의 하루’ 같은 따뜻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청취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를 틀어놓고 일하다 보면 웃음도 나고 힘도 난다”는 피드백은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마을미디어의 역할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마을미디어는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고 공동체로서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돋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히 소외된 계층에게도 문화적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요. 예전에 가족 이야기를 담은 연극 공연을 할 때, 극단 주변의 어르신들을 초대했어요. 그분들께서 공연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셨을 때, 예술이 가진 힘을 다시 한 번 느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라디오 드라마와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루고 싶은 새로운 주제나 콘텐츠 형식이 있나요?

라디오 드라마의 한계를 넘어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나 공개 토크쇼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식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청취자들이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직접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 | 이삼열

다큐멘터리 <어린이식당 마루>를 기획하던 중 사회참여형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고, 멘토링을 받으며 막연히 3년을 계획했던 기획을 6개월 동안 바쁘게 관찰하고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한 번 마무리해 보니, 주제가 적합했는지,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맞았는지, 그리고 나의 최선과 부족함은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도 경험했으며, 일부 촬영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 어린이들의 도움을 받아 중요한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하며 어린이들과 더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마루에 방문하는 어린이들과 이야기하고, 봉사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대하는지, 어린이들은 왜 마루에 찾아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래를 위해 살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고 있으며, 더 큰 선물보다 지금의 작은 사랑과 따뜻함을 더 기뻐하며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세 아이를 함께 양육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중에 마을미디어 사업까지 병행하느라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를 데리고 마루에 자주 가는 편이었지만, 어린이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에 5~6시간을 마루에서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어린이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 않았고, 그것이 결과물에도 그대로 드러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생각은 제가 막연히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고, 그들의 생각을 말로 듣는 것도 어려웠으며, 카메라에 담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관찰하고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앞으로 보완 할 장면을 정리해 재촬영하고, 어린이들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관찰하여 촬영하여 이야기를 더 탄탄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준비한 일정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습보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사건과 감정선이 드러나는 에피소드를 촬영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어린이들의 꿈을 따라가는 영상을 기획해 보고 싶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로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멘토링을 받았던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멘토링을 통해 점검을 받았지만, 막막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강의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시작했다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제작형 등 다른 유형은 에피소드 한 편을 만들고 피드백을 통해 여러 번 발전할 기회가 있지만, 사회참여형은 4번의 멘토링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사회참여형 프로젝트를 모집한다면, 난이도가 낮은 주제와 소재를 통해 작은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도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 적응하고, 더 안정감 있는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미디어 사업에 참여하면서 바쁜 시간을 핑계로 단톡방이나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점이 늘 죄송하고 아쉬웠습니다. 얼굴을 한두 번 본 분들도 있지만, 아직 친해져야 할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를 통해 그 거리를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 콘텐츠 |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아지트, 심곡본동 어린이식당 마루



오디오 | 부천오원소

저희 팀은 올해도 다양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제작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작년에 이어 여성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했고,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을 게스트로 초대해 그들의 일상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취자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4인 체제로 팀워크가 더욱 견고해졌고,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미디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녹음 시설이 더 개선된다면 콘텐츠의 퀄리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원소 멤버 중 한 명은 마을미디어를 직업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으며,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모든 멤버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받아야 할지,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새로운 팀들이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활동을 멈춰야 할 시점은 언제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천오원소가 다른 마을미디어 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했던 오원소의 활동 자료집을 올해는 꼭 제작하고 싶습니다. 인쇄물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기록을 정리한 자료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올해 다 하지 못한 유튜브 업로드 작업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연결된 이야기와 콘텐츠를 통해 부천오원소가 마을미디어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 콘텐츠 | 청년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푸른삶' / 교육복지조정자 남우현 님



오디오 | 아빠육아수다 아육수

3년 넘게 일요일 아침마다 조기 축구를 하듯 녹음을 진행해오다 보니, 이제는 콘텐츠 제작 일정이 안정되며 정착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부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부지직 방송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신설했습니다. 비록 아직 정기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지만, 부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청취자 참여가 줄어든 점이 특히 아쉬웠습니다. 팟빵 댓글을 통한 참여 방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도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플랫폼을 확장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방송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일요일 아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미디어가 유튜브나 레거시 미디어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마을미디어 활동과 흥미를 계속 연결시킬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천마을미디어네트워크가 생기면서 다른 팀들과 만날 기회가 생겨 매우 반가웠습니다. 시민PD나 마을미디어 강사로 활동하다 보니, 마을미디어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을미디어 활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마을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소통의 장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대표 콘텐츠 | 인수네 뉴스 '평화기행, 통글자, 딥페이크' & 아빠 건강검진 걱정하는 승연이



영상 | 부천사람들

이번 사업에서 부천마을미디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람 있었지만, 영상 제작 일정이 밀린 것이 가장 아쉽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홍보 영상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영상을 제작하고 싶지만,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모 수상이나 활동 성과보다는 저 자신만의 진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야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을미디어팀들을 세심하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쉽지 않겠지만 팀 간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대표 콘텐츠 | 부천마을미디어 청소년들을 만나다



오디오 | 송내동끼디오

이번 사업을 통해 송내동과 인근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환경, 사회적 약자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문제들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송내동끼디오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이 보람 있었습니다.

2023년 마을미디어 사업에 참여하며 연합방송을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미얀마 카렌족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2024년 송내청소년센터 청소년동아리를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참여와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진행자들 또한 다양한 패널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삶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콘텐츠 확산이 쉽지 않고, 지속적인 제작 과정에서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이 한계로 느껴졌습니다. 매주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해야 하는 부담, 녹음 음질을 개선할 기술적인 한계, 편집 프로그램 사용 미숙 등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매년 비슷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졌고, 청소년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할 때 원하는 만큼의 분량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편집 프로그램 숙련도를 높이고, 콘텐츠 제작 횟수를 조정하며 보다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함께 제작하는 콘텐츠의 경우 사전 작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 논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을미디어센터가 참여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올해도 예산 지원 덕분에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습니다.

대표 콘텐츠 | 세계 환경의 날 특집: 기후위기, 이대로 괜찮을까?



오디오 | 희망샘

기획, 녹음, 편집을 도맡아 하던 회원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팀의 노력과 마을미디어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방송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미디어 이전의 활동이었던 마을신문을 활용해 과거 신문 기사를 통해 현재의 이야기를 풀어보는 ‘다시 읽어보는 마을신문’ 코너는 희망샘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희망샘의 최연소 회원과 최고연장자 회원이 매달 함께 방송에 참여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소통할 수 있었던 점도 중요한 성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 녹음 장소였던 수주도서관 미디어창작소가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새로운 녹음 공간을 찾지 못 한 점이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운영시간이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되어 직장생활을 하는 회원들과 녹음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녹음기기의 오류로 인해 녹음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잡음이 심하게 들어간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상태로 방송을 업로드해야 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용시간이 더 개방적인 녹음 공간이 거점별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송기기 작동법을 숙지하기 위한 자발적 학습 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마을신문에서 마을라디오, 마을영상으로 이어지는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가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극소수 청취자만 듣는 마을미디어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녹음기기에 대한 이해와 작동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녹음기기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습하기 어려운 점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올해는 노트북과 USB 마이크를 활용해 집에서 녹음하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이 방법에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마을미디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작하고, 청취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며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대표 콘텐츠 | 희망샘, 다시 읽어보는 마을신문



영상 | 산학교

산학교 학생들은 민주교육 실천 과정을 스스로 기록하며 자부심을 느꼈고, 이를 사람들과 나누는 확산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마을미디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 기획, 촬영, 편집 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많았던 점이 이번 사업의 주요 성과 중 하나입니다. 산학교는 2021년 마을미디어 교육을 시작으로, 2022년과 2024년에 걸쳐 마을미디어 활동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미디어 활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학생들은 매년 바뀌고, 흥미를 쉽게 잃기도 하며, 꾸준히 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의 관심을 제작 과정까지 연결시키기 위해 교사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또한, 확산 활동, 연합 방송, 네트워킹 등은 어른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초반에는 이러한 역할 구분이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교사가 처음 계획한 의도와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 과정이 쉽지 않았고, 영상 제작 일정이 빠듯해 마지막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 완성도 높은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영상 제작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고,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을미디어 활동의 핵심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합니다.

대표 콘텐츠 | 광주에서 목포까지 걸어서 8박 9일,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



영상 | 부천시니어멘토스쿨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유언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성의 시간을 갖고, 가족과 현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팀의 실력이 향상되어 미디어 제작에 큰 도움이 되었고, 회의 때마다 서로 굿 뉴스를 공유하며 소통과 정보 교환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다만, 촬영과 편집을 넘어 한 단계 더 발전된 기획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심화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팀은 관내 복지관, 경로당, 평생학습 기관, 단체에서 유언과 관련된 교육 또는 영상 제작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이 유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표 콘텐츠 | 유언 영상, 백조날다!



영상 | 뜰작마을미디어

이번 사업을 통해 팀원들이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영상으로 담아내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팀으로서 협력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성과였습니다. 이전보다 영상 제작 과정이 좀 더 편안해진 것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자 제작한 영상 편수가 많지 않아 촬영과 편집 능력 향상이 더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바빠지면서 영상 제작에 집중할 여력이 줄어들었고, 처음 계획했던 영상 편수를 채우지 못한 점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팀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영상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어깨에 부담을 덜고, 좀 더 편안하게 영상 촬영과 편집 작업에 접근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활기찬 영상 활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대표 콘텐츠 | 역곡천과 그 남아



영상 | 상살미사람들

이번 사업은 구성원들에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확장하며 미디어에 대해 어렵게 느끼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공동체 운영에서도 더 단합된 팀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역량을 전문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고 싶었으나 기획, 촬영, 편집 등의 기술 부족으로 기획 의도에서 벗어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라디오 팀을 구성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조율이 어려웠고, 평소 미디어를 소비하던 입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편 한 편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드는 도중 흥미를 잃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열정과 흥미를 지속하는 것이 큰 고민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팀 단위와 개인 단위로 채널을 생성하여 팀원 각자가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로서의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팀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 중 진행된 미디어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강의가 계속 운영되길 바랍니다.

대표 콘텐츠 | 우리들의 벽화 보수 작업



영상 | 뭐하는언니들

이번 사업에서 가장 보람된 점은 각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점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외부 디자이너와 함께한 특별한 도자기 수업을 다뤘습니다. 수업 후 디자이너님께서 도자기 작업 촬영본을 활용해 영상 편집 기술과 다양한 팁을 알려주셨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뜻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도자기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오랜만이었지만, 도예를 간접적으로나마 소통한 것 같아 즐거웠고, 영상을 완성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반면, 좋은 영상 이미지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팀 작업의 과정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속초 제작에 미숙하여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느꼈습니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원했던 스타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수정 작업이 많았고, 다함께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 편집 기술을 더 공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편집 작업에서 유용한 단축키나 방법을 몰라 검색하며 배운 경험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유튜브 교육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영상 제작의 재미를 느꼈고, 앞으로 더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 콘텐츠 | 스테인드글라스 유리공예로 완성된 작품은 특별함이 있다-돌고래 만들기



영상 | 상.상.공.유

이번 사업의 성과는 그동안 단체 집행위원들이 요구해온 ‘영상 제작’을 실제로 해본 경험입니다. 항상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던 영상 제작을 바쁜 일정 중에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행사가 있을 때 바로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 기획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기획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영상 촬영과 제작을 함께할 인력이 부족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점이 어려웠고,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신규 참여자로서 콘텐츠 제작 횟수에 대한 ‘선계약’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단체 행사 일정 변동으로 인해 애초 계획한 숫자를 채우지 못했는데, 이를 ‘목표’가 아닌 ‘선계약’의 개념으로 접근하니 더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점이 개선된다면 사업 참여가 훨씬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대표 콘텐츠 | 만들자, 부천시 공공병원! 공공병원이 뭐예요?



영상 | 마들소리

부천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여성 리더들과 봉사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 경험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 분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각자의 방식으로 남을 돋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하며 오래 기억될 수 있게 남겼다는 점에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인터뷰를 매개로 진행된 영상 제작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상대측의 흥보 영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소 2~3번, 많게는 5번까지 촬영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영상 기획이 있었다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한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촬영은 이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실제로 경험해야 실력이 는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팀의 영상 제작 실력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힘이 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욕심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영상들은 마감 시간에 쫓겨 급히 완성했기에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저희의 잘못이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후작업을 진행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대표 콘텐츠 | 1500시간 자원봉사를 실천? 요즘 시대에 이게 가능? 진짜? 실.화.??



영상 | 팡팡필름

올해는 작년과 달리 부천 시민들의 사연을 ‘추억의 장소’라는 주제로 담아 장소를 소개했습니다. 부천에 오래 거주해온 시민들과 마을, 추억,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천을 더 깊이 성찰하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않지만, 영상을 감동적으로 보았다는 후기나 재미있었다는 시민들의 반응을 들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을미디어의 일원으로 채널을 꾸려나가는 일에서 흥미와 재미를 발견하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외 촬영을 하다 보니 날씨에 따라 풍경이 아쉽게 찍히는 경우가 많았고, 주민들과 시간 조율이 쉽지 않았던 점이 어려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한 만큼 보람된 기억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부천에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이 많은 만큼 팡팡필름만의 부천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를 구상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및 편집 기술의 개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천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며 마을미디어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 콘텐츠 | 20년 전 남동생과 주먹다짐 할 뻔한 추억의 장소, 부천상동시장



영상 | 유한대PMC

이번 사업을 통해 부천의 다양한 공원을 알게 되었고, 이를 영상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이었습니다. 영상 편집 실력 향상 뿐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했던 드론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점도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제2회 김수환 추기경 학술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상 전공 대학생이었습니다. 젊은 세대 속에서 함께 활동하며 성과를 낼 수 있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또한, 부천문화재단과 정식으로 마을연극단 다큐 영상 제작 계약을 맺은 것도 이번 사업의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팀원 간 스케줄 조율이 어려웠고, 영상 편집 기술 수준의 차이로 인해 작업량이 일부 팀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팀 전체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표 콘텐츠 | 부천의 아름다운 공원시리즈#8 소향공원



영상 | 우승

기존에는 청소년 마을체험 공간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했다면,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차이와 교육 환경의 현실을 알게 되었으며, 마을미디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체험자와 담당자의 초상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분량을 채우는 데 급급해 스토리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주제에 맞는 청소년 참가자를 미리 모집하여 초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형식의 공동 영상물을 기획해 스토리 구성과 확장 활동의 연계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대표 콘텐츠 | 청춘을 모시는 청년을 담다



영상 | 이소박

이소박의 주요 활동을 알리고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팀원들 간의 화합, 기획력, 추진력 등이 성장한 점도 큰 성과입니다. 어려웠던 점은 예산 부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더 완결성 있고 퀄리티 높은 마을미디어 제작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러 편의 영상을 만드는 결과 중심적인 방향보다는, 퀄리티 높은 영상 1~2편을 만드는 것이 마을미디어 확산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 매체가 결합되는 형식의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대표 콘텐츠 | 이소박의 전시 설치 현장





CHAPTER 06

사업소개

참여단체

모니터링

활동리포트

참여후기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OBS FM <경인마을라디오>

OBS FM 99.9MHz <경인마을라디오>는 고양,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성, 화성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시민의 참여로 제작해온 시민제작참여 프로그램입니다. 토, 일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30분 동안 송출되며, 부천마을미디어 활동가와 시민제작자는 총 10회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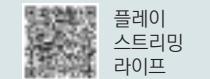
방송일	시민제작자	세부주제
1 4월 13일	부천연대	세월호 10주기와 부천의 활동들
2 4월 14일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영상 유언장 프로젝트
3 5월 11일	소사FM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유병연
4 5월 12일	음악놀이터	공간예술과 도당동
5 5월 25일	PYC	우리 곁의 동네 고양이
6 6월 26일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라디오 드라마 : 쓰레기 불법투기
7 11월 2일	보니보니	부천에서 살다 보니
8 11월 3일	문화도시부천시민기획단 시민위원	부천문화도시 5년, 그리고
9 12월 21일	상살미사람들	상살미 사람들 톡톡!
10 12월 22일	희망샘	다시 읽어보는 마을신문

표시된 방송은 OBS <경인마을라디오> '월별 우수작'으로 선정된 방송입니다.

우수작
보러가기



부천연대



플레이
스트리밍
라이프

지역거점 마을미디어 기초교육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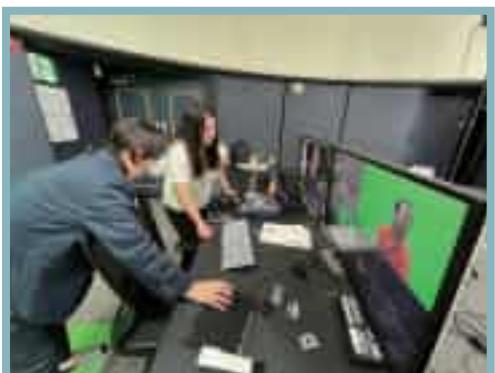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부천시립수주도서관



부천시립원미도서관



부천시립한울빛도서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부천아트벙커B39

